

◎ 韓國政治學會와 在北美韓國人 政治學者會의 제 5차 合同學術大會가 지난 8月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변동하는 세계와 韓國의 民主政治」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백 20여명의 국내 정치학자와 在美학자들이 論文 44편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 延世大 동서문제연구원과 西獨 뮌헨大 동남유럽경제 및 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제 1회 韓·獨 學術심포지움이 지난 7月 서독 뮌헨교외의 투정 정치교육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사회주의 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이란 주제로 延世大의 李宗夏, 朴振根, 金滄中 教授 등 양국의 학자 15명이 참석한 이번 學術會議는 국내 학계가 세계 유수의 東歐연구기관과 공동의 세미나를 통해, 東·西간의 학문적 교류 및 발전적 입장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접촉의 가능성을 폭 넓게 타진하고 심층 분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 韓國統計學會는 지난 7月 28일부터 30일까지 延世大에서 第2次 韓·日共同 統計學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韓·日 양국의 통계학 관련 학자 32명이 참석하여, 5개 분야로 나누어 論文을 발표했다.

◎ 韓國커뮤니케이션학회는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해」를 맞아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제 13차 汎太平洋지역 커뮤니케이션 國際學術大會를 지난 7月 28日~31日에 걸쳐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주제는 「언어와 문화관계」, 「비언어적 행위와 문화적 패턴」, 「가치체계와 커뮤니케이션」, 「사고패턴과 의사소통양식의 차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50여명의 관계학자들이 참석, 논문을 발표하였다.

◎ 國際汎外科學會는 오는 9月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하이아트호텔에서 제 5차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모임에는 韓國을 비롯한 6개국에서 3백 50명의 회원이 참석하며 外科學 분야의 저명한 6명의 학자를 초청, 특별강연회도 갖는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최근 「韓國學研究人名錄」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韓國學資料 종합전산화계획에 따라 컴퓨터로 인쇄한 첫 출판물로서 학자의 人的事項과 研究業績을 함께 수록, 韓國學의 현황 및 실태를 한 눈에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국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학자는 국내인 2천 8백 45명, 외국인 또는 국외거주 한국인 3백 19명이며, 또한 국내연구기관 2백 33개소와 국외연구기관 57개소의 면모도 소개되어 있다. 이 人名錄은 앞으로 2년마다 수정·보완관이 속간될 예정이다.

◎ 한국언어문화회는 최근 제 21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朴堯順교수(韓南大)를, 부회장에 朴俊圭교수(全南大)를 선출했다.

◎ 仁川大學의 새 學長으로 閔丙岐씨가 선임되어 지난 7月 21日 취임하였다.

聖心女大는 8月 3日 새 學長으로 高道任씨가 취임하였다.

또한 慶北大學校는 8月末로 정년퇴임하는 韓明洙 總長의 후임으로 徐元燮 학생처장을 내정, 9月 1日 취임하며, 釜山大學校도 文鴻柱 總長의 뒤를 이은 새로운 總長으로 崔載勳 釜山大 행정대학원장이 선임되어 역시 9月 1日에 취임한다.

한편, 文敎部는 尙志大 朴在佑 學長의 연임을 승인하였으며,

朝鮮大學校도 지난 8月 12日 새 總長으로 金宅柱 전 대학원장을 선임하고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